朝鮮日報 朝刊
人行發輯編 方應謨 印刷人 高在進

社說 歲末同情週間
따뜻한 밥한술 주라

一

살을 어이는듯한 찬바람속에서 네거리에서서 熱心으로 鍾을 흔들며 慈善남비에 同情金을 던지라고 웨치는 救世軍이 잇다。年中行事의 하나로 一種 形式的 行動에 不過한것이라하야 一顧할 餘地를 두지안는다면 모르지만 그들이 自己個人의 利益을 爲함이 아니라 貧寒에 떠는 불상한 무리에게 一匙의 밥、一襲의 옷을 주기위한 精誠이라 할것가트면 누구나 그 종소리를 거저 듯고 지나치지는 못할것이다。아니 그들이 設使 形成的 假面의 行動이라 할지라도 實際 世上이 新年을 마지하기 위하야 새 飮食과 새 衣服을 準備하기에 餘念이 업슬때 까드로 彷徨하는 流離群을 본다할것가트면 누구나 一錢의 銅貨 한개라도 던지지 안흘수는 업슬것이다。

二

다른 都市、다른 地方은 暫時 別問題로 하고 京城에만 細窮民이 얼마나하면 忽驚 三萬七千餘人이라 한다。細窮民의 程度에 여러가지 種類가 잇슬지나 이 三萬七千餘人이란것은 그날 제끼를 못먹는 헐벗은 赤手空拳의 貧民을 말한다。非常時景氣도 이들에게는 幻影이오、大廈高閣과 肉山脯林을 자랑하는 大京城도 그들에겐 咀呪의 的이 되어잇다。吾人은 새삼스럽게 그들에게 感傷的 同情心을 이르키는것은 아니다。그러나 世上이 다 질거워하고 반가워할 新年에 혼자 貧寒에 떨고 世上을 咀呪한다 하는것은 社會의 公心이 이것을 默視할수업는것이다。예수는 富者가 돈을 던지기는 駱駝가 바늘구녕으로 드러가기 보다도 어렵다는 意味의 말을 하얏다。世上에서 富者의 同情을 求하기는 어려우니 뜻잇는 이의 한푼 돈으로라도 이 貧民들을 救하자。

冬休와學生
心身鍛鍊의時期

一

今日을 前後하야 各學校의 冬休가 開始된다。學校에 따라 二週 或은 三週、四週式 休學하는期間이 다르나 이 冬季休暇는 學生들의 一層 意義잇는 때라 하겟다。이때에 卒業班은 그나갈길을 作定하고、在學班은 一層 더 工課에 精進할 方途를 硏究、試驗할것이다。同時에 이밤이 길고 農閑한 機會를 利用하야 내 家庭 또는 내 이웃에사는 無學、文盲者에게 글자와 數字를 가라치며 實社會의 一部面이라도 接觸할 機會를 어들것이다。더욱 滿山遍野 白雪에 덥힌 大自然을 征服할 意氣와 膽力을 鍛鍊할 機會이랴。

二

大抵 學問은 單純한 机上의 讀書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다。世上實物에 接하야 智能을 啓發하고 德育을 成就하고 身體를 健全히 하야 써 어떤 方面으로든지 有爲한 人物을 만들게함에 잇다 흔히 朝鮮敎育界에는 知識偏重으로 흐러 德育

이든氏外相就任에 伊政府는大不滿
和協的解決一層困難豫想코
戰爭準備完了도斷言

【羅馬二十二日發聯合】聯盟至上論者 이든無任所相이 새로 外相에 就任하야 大英帝國의 外交政策을 遂行하기로 決定하엿다는 報道에 伊太利政府當局은 露骨的으로 不滿을 表明하야 二十二日夜 如左히 確言하엿다

이든無任所相은 伊에兩國間에 紛爭이 發生한 以來 終始一貫 伊太利 政府에 對하야反對態度를 取하여왓다 이든氏가 外相에 就任하야 英國政府의 外交政策을 決定하게된다면 紛爭의 和協的 解決은 一層 困難하게될것이다 英國政府今回의 決定은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故意로 非友誼的行動을 取하엿다고 解釋되지안흘도아니다 勿論 伊太利政府는 戰爭에 應할 用意는 完全히 準備되어잇다는것을이에斷言한다

뭇솔리니首相 巴里試案默殺決定

【羅馬二十三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은 二十一日 베네치아宮에 英國大使드라몬드氏及 佛國大使샹브랑伯을 招致하고 伊太利政府는 刻下의 情勢에 鑑하야 巴里試案에 對해서는 何等 回答을 發치안키로 決定하엿다는旨를 通告하엿다

廣田外相 邦交親睦令實踐 南京政府에要求
有吉大使도諾否一言을要求
日中關係又復逆轉!

【東京電話聯合】蔣介石新行政院長、張群新外交部長과重要會見을遂하고上海로歸還한 有吉駐中大使로부터 二十三日 外務省에發한 公電에依하면 南京政府의對日外交方針은 極히 誠意를缺하야 廣田、蔣作賓會談에서 好轉되든 三原則을 中心으로한 日中兩國關係의 全的調整問題도 實際上 一頓挫狀態에잇고 北中問題에關한 南京政府의見解는 아직도 解決하려는意思가업고 日中關係促進의 現狀에 卽하지안흔것을 端的으로 表明하고잇다 그리고 一方中國學生 一般商工會等은 愛國運動에 藉하야 排日排貨에 暗躍을 開始하려는事態를 示現하려하며 蔣介石氏가 軍政黨의 三位一體制를强硬히主唱하야 입으로對日調整을標榜하는一方 歐米派의態度를 默過하야 對日牽制工作으로 나가려하는 內外의 過迫된 情勢에 對하야 有吉大使는 廣田外相에 對하야 第二段工作의 重要請訓을 發하여왓슴으로 廣田外相은 거듭南京政府의 猛省을 求하야 南京政府의 邦交敦睦令의實踐을 要求하는 一方 日本의 東亞政策의 眞髓에 關하야 徹底的 諒解說明을 開陳하엿슴으로 有吉大使는 情況의 推移를 靜觀한後 一月初에 蔣介石氏와 會見하고 再次 態度表明을 要求하야 南京政府의 諾否와 一言을 要求할터인바 日中關係好轉은 一個年을지나 逆轉되여 兩國國交關係는 明春으로써 重大危機에 到着하게되엿다

復旦大學生三百 上海停車場闖入

【上海二十三日發電通】北中自治反對學生請願運動은 依然 繼續하야 二十三日 復旦大學生三百餘名은 國民政府當局에請願키爲하야 午後一時二十分 北停車場發列車에 搭乘하려하엿슴으로 當局은 卽時 公安局保安隊를 非常出動식혀 各所에 鐵柵을 設하고此를阻止하려하엿스나 學生團은 鐵柵을 破壞하고 停車場構內로闖入하야 同列車는 運轉不可能하게되여 南京行은드되여 發車不可能에 終하엿다

騷亂한過去一年 國際政局縱橫觀 ③
李甲燮

◇

英佛等의 對獨工作이 이와가티 猛烈한決合에도 不拘하고나 치스獨逸은 三月十二日 베條約空軍項目의 廢棄를 宣言하고다시 三月十六日에는『베르사이유條約은 各締結國에서 履行의意思가 업는以上 事實上 存在치아니하다 獨逸政府는 自國의無國防狀態를 終息식이는데 必要한 手段을 講求치 안흘수업다』고 聲明하고 同條約第五篇軍事項目의 一方的廢棄를 宣言하는同時에 四月一日부터 義務的徵兵制度를 斷行할것을 發令하얏다 베條約軍事項目廢棄에 對하야는 英佛에서 이미 그維持가 困難할것을알고 獨逸의 聯盟復歸 軍縮條約締結을 條件으로 그廢棄에意見이 一致되야 싸이먼 外相은 그 協議次로 三月 上旬 伯林에서 히틀러와 會談키로되엿섯다 히總統은 三月五日에이르러 病을 理由로 싸이먼 과의 會見을 三月二十四日로 하고 發表해노코 三月十六日에이와가티 爆彈的 宣言을 한것이다 이로말미아마 歐洲政局은발칵 뒤집혓다、今春以來로 獨逸의 이와가튼 一方的 行動을警戒하고 아무조록 獨逸로 하여금 國際協調에 參與케하려든佛伊、英佛兩協定은 이제 餘地업시 蹂躪되고말엇다

◇

그런데 이爆彈宣言에對하야 가장 緊張한것은 亦是佛國이엿다 라발外相은 卽時 英佛伊가 步調를 一致하야 이에對抗할것을提唱해노코 同二十一日에『獨逸의 再軍備는 全世界로 하여금非常한 不安을 품게하는同時에 國際協定上違反이다 이와가튼 一方的決定에는 斷乎 反對한다』는 强硬한 對獨抗議를 提出하얏다 伊太利에서도 二十一日 亦是 强硬히 抗議하얏다 獨逸側에서는 어느것이나 抗議는 一蹴해버렷거니와 英國은 이보다압서 十八日『獨逸의 一方的行動은 歐洲의 不安을 增大한다 이것은 獨逸의 軍事上 希望을 滿足식임에 依하야 獨逸을 歐洲平和機構의 一員으로하랴는 英國의 努力을 水泡에 돌아가게 한것이다』라는 意味의 穩和한 抗議를 하고 끗흐로 이제도 英佛宣言趣旨에 依한 會商을 하겟느냐고 물엇다

◇

英國의 이와가튼 對獨妥協態度는 對獨英佛共同戰線의 龜裂을 意味하는것이거니와 이에對하야 佛伊는 大端히 不滿하얏다 이에 싸이먼英外相 이든一行은三月二十五六日의 伯林會談을 압두고 二十三日에 巴里에 와서 佛伊의 억개를 두드려가지고『一、싸이먼의 訪獨은 情報蒐得을 目的으로함 二、訪獨結果를 기대려 四月十一日 스트레자에서 다시 英佛伊 三國相談會를 開催한다』는것을 決定하고 싸이먼外相은 三月二十五、六兩日間 伯林에서 獨逸側과 會談한結果 獨逸側의 要求는

一、五十萬의 兵員을 要求함
二、空軍은 英佛伊獨의均勢 海軍은 對英三割五分일것
三、殖民地回復
四、相互援助를 包含한 東歐로카르노에는 參加치아니함
五、國聯에는 復歸할수업다』等

이엿다 싸이먼은 엄청난 要求에는 啞然햇다 그길로 이든國璽尙書는 莫斯科를 訪問하고 三月二十七八兩日間 意見을 交換한結果 蘇聯側에서도 東歐로카르노의達成을 熱望하고잇는것을알아가지고 스트레자會議에 다다랏다

◇

四月十一—十四日까지 伊太利北部스트레자에서 英佛伊三國會談을열엇다 獨逸에 對하야 佛國의態度는 峻烈하얏고 英國의態度는 寬大하얏다 그래서 一時는 會談의決裂을 待하더니 最後瞬間에 獨逸이 條件付로 東歐로카르노條約에 參加할것을 承諾하야 겨우『一、獨逸의 條約廢棄에對하야는 國聯에서 對策을 討議할것
二、東歐로카르노條約의 商議를 續行할것
三、墺國獨立을 保障할것
四、倫敦協定에서定한 空軍互援條約을 支持할것
五、歐洲의平和를 危殆케하는條約의 一方的廢棄에 對하야는 三國은 可能한手段에 依하야 이에反對하고 相互間 緊密한 協力下에 行動한다』는데서 終結되얏다 이會談은 對獨牽制策으로는 完全히 失敗다 獨逸이 東歐로카르노에 參與한다는것으로나 所得을 삼을까? 그것도 內容을 보면

一、獨逸은 東歐에 關係잇는諸國과 不侵略條約을 締結하고 東歐國境에對하야 現狀尊重을 公約한다
一、但 不侵略國條約에는 軍事的相互援助項目을 包含치안는 것을 絶對條件으로한다
一、다른 締約國이 別個의條約으로 相互援助를 公約하는데는 異議가업다는것이다

이것으로보아도 東歐로카르노에 對한 獨逸의從來의主張인 相互援助項目은 削除되고말앗스니 그條約의保障은 누가하랴 結局 獨逸의爆彈宣言은 그대로 認定되고 겨우 맥빠진 不具의 東歐로카르노의 承認을 어덧다는데 不過하다(續)

各派議員總會開催코 對議會陣容整備
政友、不信任案提出決意

【東京電話聯合】第六十八議會는 드디어 二十四日 召集될터이므로 民政黨、政友會를 爲始하야 民政黨國民同盟의 衆議院各派는 別項과가티 二十三日 一齊히 議員總會를 開하고 討議對策을 協議하야 이를 決定하는同時에 波瀾이 豫想되는議會에 臨할陣容의 整備를 行한바이엇다

【東京電話聯合】政友會의 議會對策은 大體로强硬方針이어서同黨은 解散에 依하야政局을 有利하게하도록 努力할方針을 取하고잇다 卽二十一日의 政調會에서 同黨슬로간을 發表하엿슬뿐아니라 二十三日은 午後二時 本部에 議員總會를 開하고 鈴木總裁로부터 激勵的人事를 行하야 不信任案提出의 決意를 表明하는同時에 解散後의 選擧對策으로 選擧委員을 指名發表할터이다

反自治學生運動 全中國에蔓延
陸軍中央部嚴重警告

【北平二十二日發電通】北中自治反對를 標榜하고 北平에서 始作된 學生反日運動은 곳 漢口 南京、上海其他重要都市에 反響을 與하야 바야흐로 野火와가티 全國에 蔓延되려는中이다 卽 各地의 情報에 依하면 河南省開封 河北省保定、四川省成都及 湖南省內의 中等學校以上의 學生이 反日示威遊行을 하고잇는데 前에 五、三○事件、上海事件을 惹起한것도 此等年少淺慮한 學生의 그릇된 愛國觀念때문이엇던것이 想起되나 萬若 中國政府가過去의幾多의 前例를不顧하고부질업시 愛國運動의 名에拘泥하야 이徹底的鎭壓을 躊躇하야 學生으로하여곰 增長하고 停止하는바업게한다면 再次 昨年의事態를 反復케할려로 日中關係를 再次逆轉惡化케할 憂慮가잇다고 日本駐中官憲에서는中國政府의 對處策에關하야 深甚한 注意를 하고잇다

【東京電話電通】陸軍中央部에서는 北中 中部中國의 學生排日運動에 對하야 南京政府의 取締에 信賴하고 可及的 速히 右運動의 鎭壓을 要望中이더바 最近 學生의 示威運動은 益益尖銳化하고 그 背後에 國民黨部는 勿論 南京政府自身이 示唆하고잇다고 볼 事實이 잇슴으로 事態를 極히 重視하고 近近 어떠한 方法으로써 嚴重警告할意向이다 卽 南京政府로부터 各大學校에 通達된 公文書에는 正式手段을 밟은 學生運動은 鎭壓치안흘方針이다 萬一 運動參加者로서 犧牲者가 잇슬境遇에는 政府에서 適當한處置를 講究하겟다는等의 말이잇고 또何應欽氏가 北平滯在中에 北中各大學校長을 招致하고 自治反對의 學生運動을 支援하겟다는 言明을 한것等으로 陸軍中央部에서는 學生運動의 取締를 말로서는 云謂하면서 그裏面에잇서 이것을 示唆中인 南京政府의 欺瞞政策에 對하야 憤慨하고잇다

聯盟交通委員 四名을中國에派遣

【上海二十三日發電通】國際聯盟交通委員會에서는 中國政府의 要請에 應하야 새로 四名의 專門委員을 派遣하기로되어 右四委員은 이미 쥬네브를 出發하야 明春一月 上海에 到着豫定인바 來中後는 中國全土의 水運陸路航空路를 視察하고 聯盟과 中國과의 技術合作을 行하려는것으로 그任務는 重要性을 帶한것이라고한다

第六十八議會召集 兩院의成立順序

【東京電話電通】第六十八議會는 二十四日午前九時에 召集하기로되엇는데 貴衆兩院議員은 定刻까지 召集에應하야 兩院은 卽時 左의順序로 成立될터이다

▲貴族院 午前十時開會 近衛議長으로부터 開院 部屬을決定하고 成立되엇음을 宣言하고 卽時 散會

▲衆議院 午前十時開會 濱田議長着席 各部屬을 抽籤으로決定하고 部長及 理事는 散會後 互選決定하야 議長에게 報告하기로하고 成立 卽時 散會

夕刊後市況 廿三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九六〇〇(一〇低)
鐘新 一五八〇〇(二〇低)
日產 七二〇〇(二〇低)
東新 一七〇五〇(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八八〇〇 先限八七四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五七四〇 先限五七六〇

人事・集會

▲安井專賣局長 二十六、七日頃 京城發 鄕里岡山서 新年을맛고 三田尻製鹽試驗所와 九州煙草製造工場等을 視察한後 一月十七、八日頃歸京豫定

▲兒島吉藏氏(京城日報支配人)二十三日午前八時大和町自宅에서遭內艱

▲矢野義男氏(總督秘書官)—渡東中 二十四日 朝歸京

폴링博士의 講演을듯고
徐椿

◇

再昨二十二日、京城市內勝洞禮拜堂에서 午後三時부터 約一時間에 亘하야 잇슨 떠니엘・폴링博士의 世界靑年運動의 大勢라고 題한 講演은 千有餘名의 聽衆에 對하야 깁흔 感銘과 非常한 衝動을 주엇다。博士의 基督敎指導者的人格과 世界靑年運動에 對한 獻身的熱意와 靑年의努力에 對해서는 博士가 現在、基督靑年勉勵會世界聯合會會長으로 잇다는 事實과 함께 이미世界的으로 令名이 놉흔바어니와、博士의 雄辯에 잇서서는 남이 어떠케 評한다는 世評을 기다릴것도 업시、當日、그자리에 안저 드른 사람으로는 누구나 崇服할수밧게 업섯슬것이다。博士의 今番、講演은 實로 朝鮮에 잇서서는 稀有의 成功이라 할수밧게 업다、한가지 遺憾이 잇섯다하면 그것은 聽衆의 大多數가 알어드를수 업는 英語講演이엇다는 一事일것이나、이것은 博士의 老練한 제스추어와 또는 延專敎授白樂濬博士의 熟練한 通譯에 依하야 補足하고도 남음이 잇섯다。

◇

博士의 說話 一時間에 亘한 千言萬語의 決河的熱辯을 一一히 드러서 紹介할수는 처음부터 不可能한바어니와、여기서 가장 感銘된바 몃가지를 드러 본다면 博士의 說明을 듯든 瞬間으로 첫재直覺的으로 엇는 感想은『言辯은 人格의 活躍이다。』라는 一事다。博士가 가진 人格을 背景으로하지 안코는 이러케 聽衆을 當場으로 併呑하고마는 滿腔誠意의 辭說이 처음부터 나올수도 업거니와、設使、다른 境遇에잇서서 그러한 人格의 背景이 업시 그러한 辭說을 吐하는 雄辯이 나올수가 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博士의講演의境遇에 잇서서와 가치 듯는者를 感化시킬힘이 업슬것이라는 一事는 비록 辭說에 造詣가 업는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생각할수잇섯슬것이다。故로 斯人을 기다려서비로소 斯言이 잇다는 一事는 우리가 博士의 講演으로부터 어든가장 重要한 感想이라고할수밧게 업다。

◇

둘재 印象은 博士의 意圖는 어데까지든지 全世界의 靑年을 積極的으로、活動的으로 引導하려는 一事에 잇다는것이다。博士는 獨逸의 靑年이 히틀러를 中心으로 히氏의 抱持한 理想의 實現을 爲하야 前進하고 잇는 事實、伊太利의 靑年이 뭇쏘리니를 中心으로 무氏의 抱持한 한바 理想을 實現하기 爲하야 움직이고 잇는 事實、그他、今番、博士가 世界一週旅中에서 이미 지나온 希臘、波斯、印度、中國의 靑年들이 各各 한 人物을 中心으로 어떤 理想을 達하기爲하야 前進하고 잇는事實을 드러가지고、이事實로부터서 그러면 全世界 一百六十二個國에 散在한 四百餘萬의基督勉勵靑年會員인 靑年들은 어느人物을中心으로 어떠한 理想을達하기爲하야 活動할것이냐?의發問을 誘起한後에 博士는 드듸여 自己가 基督敎靑年의 指導者인 本使命을 나타내엿다。

◇

基督敎靑年은 예수를 中心으로 前進해야 된다。예수가 그生前에 行하고잇든대로 行하는것이 基督敎靑年의 理想이오 目的이다。이것을 細分해서 具體的으로 말하면 여러가지가 잇슬것이나、此를 要컨대 (一) 예수의 恩澤을 못입는 사람은 다 예수의 품속으로 引導할 義務가잇다。(二) 萬人의 身體의 發達과 智識의 啓發과 (三) 心氣의健全을 圖하는것은 基督敎靑年의 重大한 使命이다。를 말한後에 博士가『예수以外의 人物을 中心으로하야 그들이 가진 理想을 遂하기爲한 前進은 一方의 前進과 他方의 前進과가 衝突될 念慮가 잇지마는 예수를 中心으로하야 그의 理想을 實現하려는 前進은 그것은 結局、愛의 勝利이니까 衝突될 念慮가 도모지 업다。』라고 한 一言은 博士가 누구인가를表示하는 가장 힘잇는 말이엇고、또한靑年運動의 特徵은 何權을 勿論하고 何等의 物質的、現世的、近眼的報償을 目標로한것이 아니요、도리여 이方面에 잇서서는 犧牲的이오 獻身的이라는 博士의 一言도 亦是 우리의 記憶을 새로히 하는것이 아니면 안된다。要컨대 博士의 이러한講演은 一場內에잇는 單千名만이 듯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느낌을 禁할수가업섯다。

(寫眞은 포博士講演光景)

輝く五十年の階梯を畢へて更に次半紀の社會文化の爲めにその第一步を進めた本誌の新偉容!!評論の高邁創作の豪宕正に全誌面は社會の心臟の脈搏に波うち潑剌淸新以て江湖の待望に應へた!!

中央公論 新年特大號 特價附錄とも 一圓

戲曲 お忍び 泉鏡花
文壇の最精銳の力作豪華特輯
破落戶の首 室生犀星
一つの小さい記録 中野重治
死顏の半夜 尾崎士郎
ひとの男 宇野千代
彼の日常生活 武者小路實篤
【短歌】齋藤茂吉・大井廣・半田良平・穗積忠
【發句】內田百閒・室生犀星・久保田万太郎・瀧井孝作
文藝時評・正宗白鳥
人間良寬・津田靑楓

地方財政と農民の生活 大內兵衛
★自由主義者の手帳 鳩山一郎
眞理と戰爭 矢內原忠雄
マクドナルドの悲劇 馬場恒吾
藝術の思想性 三木清
山水畫論・瀧精一
石油國策提言・松方幸次郎
ミリタリズムの新動向・大森義太郎
美と經濟學の動機・大熊信行
宣長の政治学・長谷川如是閑
農村と小作法・末弘嚴太郎
法律の哲學的基礎 小野淸一郎
時勢について 菊池寬
覺書 島崎藤村
職業野球時代來る
詩……森山啓
山の村・街の村(繪と文)
狂へるモウパッサン・式場隆三郎
冬山とスキー・高橋健治
世界の明暗・XYZ
法律相談・末弘嚴太郎
一九三六年に題す・諸家
所謂スポーツの排擊・眞鍋嘉一郎
軍縮會議の新展望 伊藤正德
新派に生きる半生記 井上正夫
禿げと白髮・本村儀作
北支巨頭論 長岡克曉 太田森造
★邪宗敎はなぜ繁昌するか 高島米峰
新版財界盛衰記
松の內行狀記 杉山平助・サトウハチロー・橫山隆一・美川きよ
うきよさまざま
名作映畫類纂記・伊丹万作
囲碁漫談・城西閑人
苦悶の政府
世界經濟の新展開
冬山とスキー 特輯 グラヴィヤ

1936年版 中央公論年報 別冊附錄
資料の正確、編輯の周到、正に年報これ一冊中の年報で本年の鳥瞰圖たると共に明年の動向を示す知識階級人必備のものとして廣く江湖に推薦する次第である。

總人口의約三割이 可憐한細窮民等
十月末現在가四十一萬餘名
寒心한江原道의現狀

【春川】지난시월말현재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내의 세민 총호수는 륙만오천구백륙십삼호에 인구가 삼십사만사천륙백륙십이이오 궁민의 호수가 이만사천일백십삼호에 인구가십일만여천륙백구인이라는바 세궁민총호수구만칠십륙호에 인구 사십일만륙천이백칠십여명으로 전강원도총인구 일백사십오만 륙천오백팔십이인에 대한비례는 이십구〃떠ㅣ센트〃에 달한다고한다

二百小作人結成 小作組合을組織
中間金融斡施과共同倉庫設立
撫順縣塔連地方에서

【撫順】소작인대 지주(地主)간의 분규로 무순지방농촌에서는 쟁의가 해마다증가하고 잇는현상인데 경찰서 민회(民會)급협화회(協和會)에서 조정(調停)을 하여왓는데 무순현하 탑련(塔連)지방에서는 윤영규(尹永奎)등 십륙명이 발긔하여 소작인 이백여명을 망라한 단체 소작조합(小作組合)을 조직케되엿는바 불원간 완전한 창립을 보리라고하며 이조합이 창립되면 소작인들의 쟁의를직접 집단적으로해결시키며 중간금융(中間金融)의알선과 공동창고도 설치하리라한다

産業別赤勞의 大部分服役
鄭泰植等三名未決

지난이십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받은 서대문경찰서에 검거되엿든 산업별적색로조합 사건의관계자 삼십사명가운데 정태식(鄭泰植)정칠성(鄭七星)허(許)마리아 리순금(李順今)등 네명만 이십삼일까지에도 태도불명이고 권영태(權榮台)등삼십명은 전부상소권(上訴權)을 포기하엿다한다

◇치운거름발 ……돈화문압헤서……

警戒線을突破 手金庫窃取

【江陵】강릉경찰서에서는 닥처오는 년말특별경계를 물샐틈업시 엄중히 하고잇는데 이엄중한경계선을 돌파하고 대금을절취한 사변이 이러낫다 강릉군 망상면 발한리(發翰里)호상 최봉집(崔鳳集)상점에 지난이십일일 오전두시경서 동일곱시사이에 상점에 드러가 갑족가리 손금고를 절취하여간자가잇섯다 그중에는 현금삼백이십원삼십전과 긔타중요서류등도 드러잇섯는데 범인은절취한 금고를 부시고 현금만 살작갓고 그남어지 서류와 금고는 망상면사무소압 참대밧에 바려잇섯다한다 목하 엄중히 범인체포에 노력하고잇스나 아즉 단서를 못잡은듯하다한다

科學知識普及會 忘年會

시내공평동(公平洞)에 잇는 과학지식보급회(科學知識普及會)와 발명학회(發明學會)에서는 이십삼일오후다섯시부터 시내식도원(食道園)에 사회각방면인사 수십명을 청하야 성대한망년회를 열엇다

도라홈으로賀川氏 米國서上陸拒絶

【산푸란씨스코十九日發聯合】신교적공동조합운동(信敎的共同組合運動)에관한 강연을하기위하야 신구일새벽 우선회사진부환(秩父丸)으로 산푸란씨스코에도착한 하천풍언(賀川豊彦)씨는 건강진단서를 가지고잇지아니하기 때문에 이민과의명령으로 이민공무서(移民公務署)에 류치진단한결과 만성 도라홈으로 결정되어 이민과은 동씨의상륙을거절하엿다

溫陽에火災

【牙山】지난 이십이일 오전오시 온양온천 시내 하청일(河淸一)씨소유인 정미고(精米庫)에서 이상하게도 발화되여 린가에까지도 련화하엿스나 소방대의 비상한로력으로 이시간후에 진화되엿는데 손해액은 수백원에 달하고 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에잇다고한다

金海署員繼續活動 妓生三名또召喚
穀物檢査員瀆職事件

【金海】경남김해 곡물검사소원(穀物檢査所員)박덕길(朴德吉)에 관한독직사건은 날이갈사록 확대한다는것은 수차보도한바이나 지난이십일일에는 김해경찰서사법계 박주임은 형사를 대동하고 부산에가서 환동한결과 이십이일아츰에는 부산록정(綠町)모 류각 기생(妓生) 삼명까지 소환하여다가 취조하는중이라는데 지난 십사일밤에 김해가락(金海駕洛)곡물상 배차수(裵次守)외 삼명을다리고 동래온천 벽초관(東萊溫泉碧初館)에서 수백원의 유흥비를 내면서 부산록정류곽기생 삼명을불러 한 사실이 판명되엿다한다

어머니를차저서 長安을헤매는少年
대구서올라와매일차저단니나
依托할곳업서警察에哀訴

어머니를 차저 길거리에 헤매는 가엽슨아해가잇다 대구부덕산정(大邱府德山町)일백팔십이번지 리진삼(李鎭三)의손자 상규(相奎)(一三)는 이십이일 오후열시차로 약오년전에 그를 시골에두고 서울로올라온 그의어머니 최정자(崔貞子)(三三)를차저그의사촌 규정(圭正)(二五)과함께서울로와서 그가잇다는 락원동(樂園洞)일백륙십번지를 차저갓스나 그는 이미 어대로 이사를가고업슴으로 할수업시 이십이일밤에는 본정경찰서에 와서 보호를 밧고 이십삼일에 또다시팔방으로차저보앗스나 종시알길이업다하야 이십삼일밤 여덜시에 종로경찰서 보안계에 그의어머니의사는곳을 차저달라고 애원하여왓슴으로 이서에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한편 최정자의 사는곳을 찻는중이라한다

로마바치간의鍾을 크리스마스에放送
繼續하여音樂도放送

【東京電話聯合】오는 이십오일 『크리스마스』에 제일큰 선물로 이태리(伊太利)『로마』에서 유래깁흔『바치칸』의 종(鐘)이 오전열시 이십오분부터 동여덜시일분까지(일본시간)일본에 중계방송 되기로되엿다 이시간은 마치『이태리』에서의『크리스마쓰』의밤인 오후 열한시반으로 울은한 성탄제(聖誕祭)의 종은 구교(舊敎)본고장의 위엄과 정서를 충분히 전할것이다 이에 이어서 특히 강탄제 농민가(農民歌)가방송되고 오전여덜시일분 오래간만인 일이교환재방송(日伊交換再放送)을 끗마치고『이태리』로부터의 방송에 대하야 동야열한시오십오분 부터 약이십분간 이번은『이태리』에 향하야 삼포환(三浦環)씨의 독창이 방송되고 그외에『선두의노래』정월(正月)자장가(子守唄)등 일본정서가 풍부한 소품을 보내기로되엿다

七十老婆가凍死

부내관철동(貫鐵洞)이백륙십이번지압길거리에는 이십삼일오후 세시 나이약일흔살가량되여 보이는 로파하나이 추위에 얼어죽엇슴으로 소관종로서에서는 게원을현장에보내어 간단히 조사를마친후 시체는 경성부청으로 보내엇다한다

「딸」찻고보니 債金이百餘圓

【井邑】지난이십일 오후다섯시 에 상십륙세가량의 중년녀자가 눈물과한숨을 쉬여가며 본보지국에 차저와서 사회적으로 하소연한 애화가잇다 그는 본래 전남곡성군오곡면구성리(全南谷城郡五谷面九成里)에 사는 방성례(方成禮)라는녀자로서 팔년전에 남편을 사별한후 어린남매의 자녀를 다리고 곤궁한 생활을 계속하여가든중 사라갈수가업서서 자긔딸인 옥순(玉順)(一七)이를 동군 금지면(金池面) 구장집에 박문선(朴文先)이란 자긔는 밥붓장사로 각처를 다니며 그날 그날을 지내가든중 금년봄 이월에 옥순이가 전긔 박씨의 집을 떠나서 어대인지 가고말엇다 한다 이말을 들은 전긔 방성례는 자긔딸을 찾기 위하야 전남 각처를 도라다니며 아무리 차젓스나 도모지 소식을 몰라 가슴을 태우며 구개월이라는 긴 날을 보내게 되엿다. 그러다가 당지정읍에 잇다는말을듯고 조차와서 만나고 본즉 료리집에 팔려 채금이 일백삼십원이나 되여서 채금을 반환치못하면 사랑하는 자긔딸을 다리고 갈수업게되엿다는바 그옥순이가 료리집에 팔리게 되경로는 상당히 복잡한것으로 하여간 그 녀자는 할수업시 옥순이를 파라 먹은자들의 흠이 을 조사코자 경찰에 호소를하는일방 본보지국에 와서 그와가티 말을 하게된것이라한다

運動競技

마라손의孫君 合宿練習次鎌倉行

明年世界올림픽大會에 出戰할 養正高普 孫基禎君은 來月六日부터 日本에서 열리는 올림픽陸上選手合宿練習會에 參加코저 來二十六日 午後十時五分 京城發列車로 京城을떠날터인데 學期試驗을마친君은 京水街道에서 酷寒을무릅쓰고 猛練習을開始하엿다

全江界氷上大會

【江界】氷上競技로 이름놉흔山으로江界에서는 石州體育會主催로 一月五日禿魯江링크에서 全江界選手權大會를 開催할터인데 渙江과其他各地大會에 同地方에서 選手를 派遣할時에는 今般大會成績을 參考로하야 選定할方針이라한다

피규어選手一行 安東서模範競技

【安東廿三日發電通】올림픽出場의 피규어選手一行은 大石監督引率下에 二十六日히끼리로當地에 到着한後 同日午後一時부터 六道溝링크에서 模範競技를 行할터인데 이競技會의 收入은 選手團에 餞別로서 寄贈하기로 되엿다한다

運動界人事

▲日光細尾링크에서 열리는 帝大主催 氷上競技大會에出場할 京城帝大아이스·하키-部選手一行은 卄三日午後三時發노조로 壯途에올랏다

辛吨가튼怪僧 婦女를多數弄絡
피해자는전부일본내지인녀자들
新義州警察에서檢擧

【新義州電話】신의주 영정(榮町)에 진언종산게파(眞言宗山階派)라는 간판을 당당하게 내어걸고 그뒤에숨어안저 다수한 부녀를 롱락한신돈(辛吨)식 색마가 신의주경찰서에 검거되엇다 그는빈본영치(濱本英治)(三七)과는 새파란 젊문자로 멧해전에 신의주로 굴러드러와 포교소라는것을 내이고 기괴한기도로써 녀자들의 병을 고친다고하고는 모조리 롱락을 한것인데 피해자는 전부 일본내지인으로 그중에는 상당한 집안의 부녀들도 잇섯스나 남이 붓그러워 울며겨자먹기로 피해를 쓰러덥허왓든것이다 이것을 신의주서에서 내사하다가 이십일밤 그를 검거하는 동시에 가택수사를 하여본즉 포교소의내부에는 불전(佛殿)이 잇고 그엽헤 수술실이 잇는데 춘화도를 멧장 걸어노앗고 다시 그뒤로 조고마한 조선방이 잇는데 거기에는 언제든지 이부자리를펴두고 문을열면 제절로 종이 울도록해노흔것등 완연히 신돈의작난가터서 경관도 혀를내둘럿다고한다 동인은 방금 신의주서에서 취조중인데 여죄가 상당히 만흘모양이다

清州邑內에火災 商店等四棟全燒
發火原因은아직調査中이나 損害額은一萬餘圓

【清州】지난 이십이일에 충북청주(清州)에는 근래희유의 대화재가잇섯다 청주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자화점 송경상회(松京商會)를 비롯하야 연접한집 삼동이 약오십분간에 전소하얏는데 발열시사십오분경에 시작되야 한시간후에야 겨우진화되얏스며 발화원인은 아직 알수업스나 손해액은 만여원가량이라한다

十二戶全燒되여 四歲兒一名燒死
十九戶의一部落이全滅狀態
慶州郡西面의大火

【大邱支局特電】이십이일밤 경북 경주군 서면 대곡리(慶州郡西面大谷里)림종호(林鍾虎)의 집에서 불이 이러나 맹렬한 바람에 붓길은 삽시간에 번저서 십이호 이십일동을 전소하고 석양에 겨우 진화하엿는데 불난리에 전긔 리종호 장남 명조(命祚)(四)는 불에 타서 죽엇다 그리고 이 동리는 모다 십구호 박게 아니되는 아주 가난한 마을인데 이번 화재로 전멸되다십히하여 그 참경은 참아 볼수가 업다고 한다

一週間花代六十圓을 同情週間에提供
奇特한妓生金貞香

치위와 주림에떨고우는 가엽슨사람들에게 다만 한끼의밥이라도 나누어달라고 일주일동안의 행하를 경찰서 보안계로 가저온 마음세고흔 기생이잇다 부내인사동(仁寺洞)이백아십오번지 조선권번(朝鮮券番)기생 김정향(金貞香)(二○)은 이십삼일오후 종로경찰서보안계에 나타나서 『길거리에서 입도못하고 먹도못하고 요새가티 치운날에 떨고잇는사람들의 정경을볼때마다 마음은 찌저지는듯합니다 이돈은 밤마다 일주일동안 새벽까지 술찌리에나가 바든행하입니다 다만한그릇이나마 따뜻한밥을그들에게 누어주시오』하고 정성드리여쓴 편지한장과 현금 륙십원을 내노코감으로 이서에서는 그의 고흔마음을 칭찬하는한편 적당히 이돈을 처치하기로되엿다한다

百圓을消防組에寄附

【新興】함남 신흥군 가평면 장풍리(加平面長豊里)에 사는 김희정(金希楨)이라는 당년칠십일세의 로인은 지난 십이일에 금일백원을 풍상 소방조에 의연하엿다는바 그는 근검 저축하야 모은 재산이 얼마안되는터에 그가티 하얏다하야 그부근에서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安慶鎬君釋放

【進永】진영소비조합에서 근무하는 안경호(安慶鎬)군은 모종대사건의 협의를밧고 금년구월에 경찰에

먹을것업서서 五犯에또窃盜
쌀세가마를구루마에싯고 逃亡하다가畢竟被逮

이십삼일 오후세시쯤해서 시내죽첨정(竹添町)파출소압으로 쌀두가마니반을 구루마에다 실코 그것을 겨구로 밀고가는 송씨가 몹시 어색하므로 그파출소원이 수상하게 녀이어 취조를 한결과 그는 가평(加平)출생으로 지난오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증역을 살다가 나온 절도전과 오범의 박성춘(朴聖春)(三二)인데 소와 직업이업시 시내 각처로 도라다니면서 주로 창고를부시고 물건을 훔치기 무릇 삼십여번 이날도 시외 신공덕리(新孔德里)중도정미소(中島精米所)의 창고를 부시고 쌀 세가마니반을 훔쳐서 구루마에 싯고 시내로 드러온다는것이 그물을 하다가 경찰의손에 걸리게된것이라고한다 그리하야 그를 서대문경찰서에 류치하고 취조하는중인데 여죄가 상당히 만흔모양이다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營業案內申越進呈
藥 卸問屋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電話本局 四〇九〇・一〇六八 四〇九三・四四八
振替京城一一六番

團成社
十二月廿日封切 新裝開館一週年紀念興行
毎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B、K、O라디오超大作映畫 비러막그라렌主演
男子의敵
本年度掉尾의一大收穫、空前의大男性劇이다、最高의悲劇이다、絶讚을아기지안은時代唯一의映畫!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人氣第一! 사리템풀主演
小隊長
라이오넬빠리모어助演 어엽분、텐풀、귀여운텐풀、텐풀은只今世界를울리고잇다 本篇은텐풀의大傑作品이다(天然色場面插入)
◆大每、國際뉴-스及短篇數篇
母性의秘密(次週封切)
『新春三十一日封切』男性NO1 노래의날개、第二週 코스모폴리스、(모파상作)沐浴 乞期待
洞窟女王、마옹의傑作、오페라의밤、카르로、白衣行進曲、虛榮의市、結婚十分前、裸體의女王、海賊의名譽、짠레 地獄篇
全鮮第一 映畫殿堂 電光 六五五

十二月二十日부터大封切
本年掉尾의超別特大興行!
奇怪의極致!!恐怖科學戰의展開
殺人光線 全二卷 前半上映
루이스후이드란드氏 監督 巨星온스로스리분스氏主演 아다-인스와 助演
日本人なればこそ 諸口十九氏、櫻井京子主演
大阪道頓堀카바레-赤玉舞踊團의總出演의一大豪華版
坊やのはいきんぐ M、G、M、少年少女班의出演
東日大每國際뉴-스特輯號
讀物 伊太利와 山上의에치오피아 全卷
貫鐵洞 電光 九五一 優美館

十二月二十日부터 晝夜二回興行 午後一時七時始映
入場料 階上大人50 小人30 階下大人40 小人30
青春座第二週陣容
劇界의重鎭朝見을總網羅한青春座의大公演! 滿都愛劇家의熱狂的歡迎으로連日滿員의盛況을일우고이제또다시豪華絢爛한陣容으로
時代劇 사랑은눈물보다쓰리다 中鄉牛作 二幕
主演 黃澈、徐月影、金蓮實、車紅女
九月山人作 寸劇 네것내것
李雲芳作 人情劇 葡萄園 一幕
九月山人作 主演 金鮮英、朴齊行、黃澈 家庭爭議實況放送 二景
主演 沈影 金仙草
崔獨鵑作 第三週重要內容 悲劇 死의讚美 一幕
李雲芳作 社會劇 울방아 一幕
九月山人作 喜劇 八字업는出世 二場
暖房裝置完備
竹添町一ノ 電光三二 東洋劇場

歲末特別奉仕週間
松竹蒲田桃色トーキー
花嫁の寢言
五所平之助作品 林長二郎 川崎弘子 他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二十二日より二十六日まで晝夜二回上映 第一回一、三〇 第二回三、〇〇 第三回六、三〇
新婚早早の花嫁御寮が夜なく寢られめとあって、ひそねばかり、それもその筈……花嫁が寢言ばかり云って悩ますといふのです。はてその寢言と云ふのは？
松竹蒲田名作集の內より
母の愛
川田芳子主演 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愛！愛の無い人生はうら淋しい！地球に接息する凡ゆる生物に光り輝くものは愛の力だ。母の愛！全世界人類に惡だ偉なるもの、それは聖なるかな母の愛！
洋畫專門 浪花館

密輸景氣一過後 寒散한圖們市街

東滿踏査記 (4)

圖們에서 一記者

日滿經濟블럭의 結成으로 滿洲는 日本經濟에對하야 一層緊密의度를 加하게되어 그 豊富한 資源의 開發과 日本商品市場으로서의 必要로 商業道路의 新開拓과 極東政局不安으로 軍用道路의 新開拓이 促進되게되엇스니 日本海를 中心으로 日滿兩國의 距離가 短縮되고잇슴은 旣知의 事實이다 羅津港과 雄基港이 새로운 意義를 띄고 幾百萬圓의 巨大한 設計로 建設되어 北朝鮮東海岸에는 새로운 景氣風이 불고 京圖線의 終端驛이 圖們으로 決定되어 圖們은 글자그대로의 飛躍的發展으로展開하엿다

事變以前에는 灰幕洞이라는이름을가진 無名의 國境一寒村으로 一九三一年末까지 不過百餘戶의 朝鮮移住民과 山東方面流離民이 雜居하면서 貿易을 主業으로微微한 存在를 繼續하고 잇섯으나 一九三二年三月 敦圖線의測量이 開始되어 圖們을 終端驛으로 發表하자 將來의 發展을 豫想하고 投資家와 移住民이 激增하얏으며 一九三三年三月圖寧線工事가 開始되자 더욱活氣를 떠게되어 一坪에五錢內外의 地價가 每坪一圓以上十二、三圓까지 騰躍하는 等 奇現象이 出現하얏다이리하야 資本家 勞働者 農民은勿論 무엇무엇할것업시 모여들어 一時에는 一萬四萬의 稱이잇스며 現在도 三萬의 人口를가지게되엇다

그中朝鮮人五千四百四十八戶二萬四千人 日本內地人一千三百戶五千三百人 滿洲人四百七十戶一千五百六十八人(今年八月末現在)으로 朝鮮人이總人口의八割이다

이와가티 人口가增加되고 近代的國境都市로서 面目을 一新하게되것은 本質的原因인 極東政局不安을 除外한다면 그原因으로 密輸와圖寧線建設의 두가지로 볼수잇다

滿洲國出現을 前後하야 盛行되기始作한 密輸業者는 警備의 不完全을 好機로 大膽的密輸業을 繼續하여왓다 五町內外의 國境江인 豆滿江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夜陰을 利用하야 猛活動을 開始하야 密輸品은 間島一帶는 勿論이요 멀리 哈爾賓 吉林等地까지 輸出되고잇섯다

그러나 그들의甘夢에는 一大鐵槌가 나리어 稅關의 密輸取締가 嚴密하게되엇다 그들은結局 一九三三年十月頃부터 取締를 突破하기爲하야 一種密輸團을 組織하야 四五十人式一團이되어 稅關吏와、衝突이 생기는 때는 돌과 棍棒等으로 一大亂鬪가 이러나며 流血의慘劇이 演出되엇다한다 密輸團의 組織活動은 相當히 奇妙하야 容易히 發見하지못한다하며 그의指導者는 高商出身이라는 말까지 잇스며 一時는新京人間에는 『圖們時勢』라는 流行語가 생겻스며 『密輸景氣』는 圖們이아니고는 듯기어려운말이다 이密輸야말로 圖們發展의 重要條件이며 建設景氣와 아울러 景氣二重奏이다 그러나

이가튼 暗黑面을 內包한 圖們의 非常的 似而非景氣가 承繼될理잇으랴 今年봄부터 國境警察이 總本營이되어 徹底的取締를 開始하는一方 密輸團과連絡하는 不正商人의 處罰을 嚴重히하자 密輸團의 影子와함께 密輸景氣의 破局이 到來하야圖們面界는 一大때농을 맛나게되어 北滿新開拓과 牧丹江景氣說에 한사람 두사람 北으로北으로 보짐을 싸는 판이며 新羅市街의 建物은 大部分 住民이 업시 寒히寒散한 빈집을 피고잇다

그러나 圖們은 地理的으로有利한 地帶이지라 다시 經濟的發展을 보게될 可望이 만어보인다 日本內地와 朝鮮의 商品이 이곳을 거치지안코는 東北滿에 散布되지 못할것이며 東北滿의 原料商品이 亦是 그러할것이다 뿐만 아니라 軍事上으로 보아서도 交通의 一中心點이되어 잇으며 製材 工場의 設立이 되는 날은 牧丹江으로 移轉된 滿道 建設公司에 化身하야 圖們發展에 一助가될것으로 생각된다

極寒三十餘度의 北國의 旅程은 참으로 困難하다 人影이 稀少한거리를거러 이곳重要機關인 稅關을 차즈니 K稅務課長이 親切히 對하여준다 圖們稅關取扱貿易高는(今年五月中)輸出九十四萬(國幣)그中 大豆 五十四萬圓으로 輸出의半數를 차지하고잇스며 輸入(高)二百四十萬圓으로 輸出의 二倍半인데 金屬及砂糖、雜穀及穀粉、棉布、雜貨等이 其中重要한것임을 于先말하여두면서 仔細한것은 追후記述하겟다한다 稅關을나와 市街를 大略求景하고 對岸인 故國南陽市로가는길에 눈속에 파무친 집웅치가튼것이 잇기로 자세히 보니 놀내지말지어다 그속에서 헐버슨 어린아해가 발발떨면서 나온다 깜짝놀내어 그속을들여다보니 朝鮮人夫婦가 삿자리떠러진것을맨땅에다 깔고 숫단지한개를압에다노코 무엇인지 먹을것을끄리는모양으로 燃料인 쓰레기등에서 주은 新聞紙쓰각의 눈(雪)을 덥고잇는데 옷혹의 대접에는 어름이 꽝꽝 얼어서 새여나오는 傾斜속에서 히빗을 反射시키고 잇다 그들은 이가티 치운 國境 江邊에서 얼마나 추어엇고 배고파 주으렷는지 보기에도 소름이 끼칠듯한 慘狀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이 이가티 치운날에 어떠케 살고잇는지 참으로 奇蹟으로 밧게보이지안는다

이가튼 慘狀에 새삼스러히 精神을 차리고 四方을 살펴보니 勿論 四五個所의 움집이 잇지안는가 그들은 모다 自已눈으로 빤히 보이는아페 얼어부튼 저豆滿江을 건너 건너편故土에서 쪼겨나온 무리들이 아니고 무엇이랴

毛皮의 防寒具와 스팀、빼치카스토-브等이 完備된新式建物이 바로 이圖們市內에 만코만것마는 그들에게는 한개의 그림에떡에 지나지못할것이다 東쪽에서 바로 쏘다지는 바람을 마즈면서 豆滿江鐵橋에 다달으니 男女稅關吏가 오고가는 行客의 짐과身體를 一一히 搜索한다 이다리를 지내는 사람은 누구던지 兩便檢查를 바다야하며 가진것이 업더라도 機械的으로 禮를 하고 지내는 光景은 國境이 아니고는 볼수업는 場面이다 南陽驛에 到着하야 琿春行 車票를 사려고하니 三日前부터 暴風으로 不通이라고한다 하는수업시 발길을 돌녀 다시滿洲國인 對岸으로 건너와서 京圖線의 旅客이되엇다

今年一年間의 重要經濟日誌

◆十月

一日 ▲鰮油十月物定期輸入札은數量二十一萬七千餘函으로 入札不成立、但 日本食料工業과의間에 十三萬七千函二圓九十五錢으로 隨時契約成立 그리고年初以降 八月까지의 出荷高는 百八十五萬函

▲國勢調査施行

二日 ▲仁川水原間의 鐵道敷設認可 資本金百五十萬圓 三菱으로부터 公募는一部

三日 ▲農村更生과함께 産業組合의 設立希望增加 今年度設立希望四十餘組合에 達하야 今年六月末現在七十三組合이 今年度內에 百組合을 突破할模樣

▲米界의 活況에 伴하야 朝鮮內의 各米取도 賣買高增加、仁川에서도 二十九萬七千九百石의 取引이잇고 九月中의各取引高를 보면 仁川三百七十三萬餘石 (對前年同月比五割二分增) 群山百六萬餘石 (四割九分增) 大邱百二十三萬餘石(七分增) 釜山三十四萬餘石 (四割七分減) 鎭南浦六千餘石(七割減)

▲長津江水力電氣는 十日發電을開始、下旬부터 正式發電、今年中에는 十萬八千키로發電으로 第一期計畫을 完成할豫定

六日 ▲大日本紡績副社長渡來 工場敷地物色中

▲三井系煉炭工場 永登浦에新設日産百噸

七日 ▲今年度 朝鮮內鰮油生産高는 九月末까지에 二百五十萬罐、今後每月七十萬罐、年末에는 四百三十萬罐의 生産豫定으로 新記錄을 지을模樣

▲茂山鐵鑛開發을 爲하야 三谷三菱鑛業會長入京

▲平北、京畿、江原의 水害及全南北、忠南北의 旱害救濟 施設費二百十萬圓支出決定。

八日 ▲金剛山電鐵 兼 朝鮮鐵道의 兩私鐵과 滿鐵 及 滿洲鐵路總局間에 連帶輸送을 開始키로 內定。

十日 ▲京城電氣 唐仁里發電所 一萬二千五百키로 擴張은 今月中에 完成。

▲京城電氣의 電氣 及 瓦斯料金引下發表。

十四日 ▲朝鮮窒素會社에서는長津江水力電 第一期計畫完成과함께 來年부터 五十萬噸을 生産할수잇다고。

▲鎭南浦米豆取引所의 認可取消키로 決定하얏다는 報가잇다。

十六日 ▲大日本紡績의 朝鮮內設立工場은 仁川 及 平壤에 內定하얏다는 報가 잇다

十六日 ▲朝鮮工業協會主催의 朝鮮工業資源展覽會 今日開會。

十七日 ▲長津江水電 第二期計畫十一萬키로發電工事着手 經費一千萬圓。

▲總督府 鑛山課에서는 朝鮮內 各中小鑛山實地指導班을 三班組織 十一日부터 派遣키로內定。

十九日 ▲回顧二十五年商工座談會開催。

廿一日 ▲朝鮮製絲業令施行規則公布。

▲咸南의 帝國製麻會社에서는이미 二三의 工場을 新設하얏는바 今後 數個所에 新設하는同時에 亞麻仁의 處分에對하야 三井物産과 協力하야 이處理法을 講究키로 內定。

廿二日 ▲元山水力을 主體로 北朝鮮電力、咸南電氣 及 北靑電氣를 合併하야 咸南의 一大配電會社設立案認可。

▲豊國製粉會社에서는 熊本에 工場新設計畫中、能力은 千二百바-렐、第一期計畫 六百바-렐。

▲石鹼業者로부터 朝鮮鰮油入札에 加入을 總督府에 陳情하얏다。

廿五日 ▲煉炭合同會社는 資本金二百萬圓、四分의一拂込 十一月 創立總會開催。

廿六日 ▲朝鮮內 最近의 鑛區數는 四千三百五十四에 達하야 二千二百六十二、稼行鑛山은 五割을 占하고 그中 金鑛 一千九百四十七에 達한다

廿八日 ▲今年一月부터 九月까지의 土木建築契約은 四千百五十二萬餘圓에 達하야 今年末까지五千萬圓을 突破하리라한다

▲十一月二日부터 麥酒會社値上 京城價格은 各五十一錢 (前五十八錢)으로 內地同様値上 二錢五厘의値上

▲更生水利組合聯合會組合發服의 正組市場進出은 設置 仁川徑價七錢七厘로決定

三十日 ▲朝鮮內十年度麥收高發表、大麥八百七十五萬餘石、小麥百九十三萬餘石、裸麥百六十二萬餘石、計千二百三十一萬餘石、對前年實收比一割七厘增

▲對滿鹽魚乾出荷補助配當決定、補助總額二萬五千圓

質疑

一問一答으로 簡單明瞭하게

問 本人이 水飴을 製造코저 무슨 釜에다 니켈 크롬을 칠하여야될니가 그方法을 下敎하시옵소서 (咸北鏡城南門外 金約翰)

答 一、니켈鍍金法=硫酸니켈溶液에 少量의食鹽과 硼酸을混和한것을 電鍍液으로 陽極에 金屬니켈 陰極에는 鍍體를吊下하는데

(1)電鍍液 硫酸니켈 二四〇瓦 鹽化니켈 一五瓦 硼酸 三〇瓦 水 一〇〇〇瓦

(2)電流 〇、五—一〇 암페아—平方呎 陽極니켈板、溫度、平溫

二、크롬鍍金法=前記同樣의方法으로

(1)電鍍液크롬酸二〇—二五%液

(2)陽極 炭素棒 電流 二〇암페아—平方呎 電壓 六볼트 溫度 攝氏五〇度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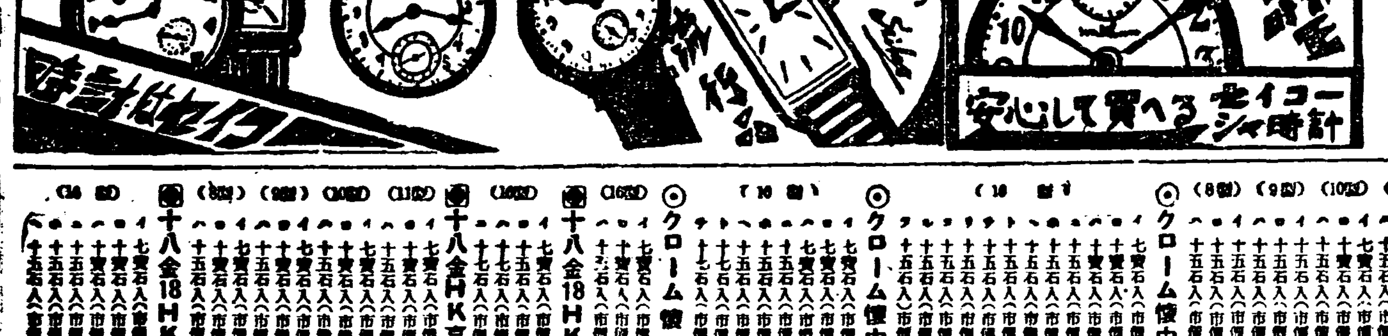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二二四八五	金銀鑛	忠南洪城郡洪北面	十二月四日	東京市麴町區 日本金鑛業株式會社
二二四八六	同	同	同	同
二二四八七	同	京畿驪州郡康川面	同五日	驪州郡州內面 代表者 朴善浩 朴廷植 朴東祐
二二四八八	同	全南羅州郡本良面 光州郡林谷面 長城郡東化面	同	群山府京町 久保宮太
二二四八九	同	平南順川郡殷山面 仙沼面	同	平壤府陸路里 代表者 朴惟敦 同府岩里 鮮于堯
二二四九〇	同	平北昌城郡大倉面 東倉面	同	昌城郡東倉面 代表者 吳廷植 同 康信坤 同大倉面 姜純禧
二二四九一	黑鉛	同江界郡城干面	同六日	安州郡新安州面 柴田次郎平
二二四九二	金銀鑛	江原金化郡遠北面	同	楊州郡廣海面 金玉渭
二二四九三	同	洪川郡洪川面	同	金化郡金化面 代表者 秋義鎬 洪川郡 郵內直己
二二四九四	同	平北慈城郡慈城面	同七日	价川郡价川面 代表者 徐相麟 慈城郡慈城面 金炬
二二四九五	同	黃海海州郡壯同谷面	同	金化郡金化面 代表者 李鎭元 同 宋彦弼 海州郡代耳面 閔寬植
二二四九六	同	同 壯谷面、月祿面	同	同
二二四九七	金銀安質母尼鑛	忠南天安郡廣德面	同	京城府苑南洞 太黑田
二二四九九	金銀鑛	京畿安城郡陽城面 元谷面	同	同太平通 代表者 金瓚泳 同勸農洞 崔守達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二二四七三	全南求禮郡光義面	十二月二日	東京市京橋區銀座 全羅鑛業株式會社
八八五六	全北井邑郡古阜面	三日	京城府本町 梶原增夫
九七二六	全南光陽郡玉龍面	同	陜川郡陜川面 阿部善左エ門
五一五五	慶北永川郡古鏡面	同	谷城郡谷城面 丁奎泰
二〇九五	慶北高靈郡德谷面 星州郡修倫面	同	京城府蓬萊町 東光商事株式會社
八九二〇	忠南禮山郡新陽面	四日	禮山郡吾可面 代表者 李善圭 同新岩面 魚在秉 同吾可面 全福孫
一一一九	江原麟蹄郡麟蹄面	同	京城府壽松洞 代表者 崔秉杜 洪川郡乃村面 吳勳植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一三六三	忠南洪城郡銀河面	十二月二日	兪鎭玉任意脫退함
九七四一	全北金堤郡金溝面	同	藤田安雄任意脫退함
一二八四	咸南端川郡水下面	同	鄭吉蓮任意脫退함
九九四七	江原金化郡近北面	三日	井爪秀任意脫退함
一〇五八九	同 華川郡華川面	同	張大淵任意脫退함
一一六三五	平北熙川郡東面	四日	吳榮善任意脫退함
九五八七	全北任實郡靑雄面	十一月四日	全鶴根任意脫退함
同	同	同	全鶴宗任意脫退함
九三六四	黃海谷山郡鳳鳴面 平南成川郡崇仁面	同	尹秉洙任意脫退함
八七六四	江原洪川郡洪川面 東面化村面	同五日	趙炳玉任意脫退함



(注文에際하야)
(1)注文은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에申込하거나小爲替로送金하시라
(2)代引注文은三割以上의內金을곡拂込하시라
(3)代引의時는送料四十錢注文主負擔
(4)先金注文時에는送料無用弊店負擔
(5)品切될염려잇스니至急注文하시라

Ⓢセイコーシャ 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急告 市價四分の一 大賣出し (某外國商館破産處分品引受整理)

◉クローム腕時計(舶來腕皮付)
(11型) イ 七寶石入(市價十一圓ノ品)只の二・六〇 ロ 十五石入(市價十四圓ノ品)同三・二〇 ハ 十寶石入(市價十六圓ノ品)同四・〇〇
(10型) イ 七寶石入(市價十五圓ノ品)同三・五〇 ロ 十寶石入(市價十七圓ノ品)同四・五〇 ハ 十五石入(市價二十圓ノ品)同五・一〇
(9型) イ 十五石入(市價廿一圓ノ品)同五・〇〇 ロ 十五石入(市價廿五圓ノ品)同六・三〇 ハ 十五石入(市價卅一圓ノ品)同七・八〇
(8型) イ 十五石入(市價廿七圓ノ品)同六・八〇 ロ 十五石入(市價卅二圓ノ品)同七・五〇 ハ 十五石入(市價卅七圓ノ品)同九・二〇

◉クローム懷中(五個以上ノ品カラタバンヲ送リマス)
(16型) イ 七寶石入(市價十圓ノ品)只の二・五〇 ロ 十寶石入(市價十二圓ノ品)同三・〇〇 ハ 十寶石入(市價十五圓ノ品)同三・七〇 ニ 十五石入(市價十七圓ノ品)同四・一〇 ホ 十五石入(市價二十圓ノ品)同四・五〇 ヘ 十五石入(市價廿二圓ノ品)同五・二〇 ト 十五石入(市價廿五圓ノ品)同六・二〇 チ 十五石入(市價卅五圓ノ品)同八・五〇 リ 十五石入(市價卅八圓ノ品)同八・九〇 ヌ 十五石入(市價四十圓ノ品)同九・五〇 ル 十五石入(市價四十五圓ノ品)同一〇・四〇 ヲ 十五石入(市價四十五圓ノ品)同一一・五〇

◉クローム懷中(ウオルサム エルジン)(米國製)
(16型) イ 七寶石入(市價卅二圓ノ品)只の七・三〇 ロ 七寶石入(市價四十三圓ノ品)同九・五〇 ハ 十五石入(市價五十七圓ノ品)同一一・三〇 ニ 十五石入(市價六十五圓ノ品)同一三・五〇 ホ 十五石入(市價七十圓ノ品)同一四・五〇 ヘ 十五石入(市價七十五圓ノ品)同一六・三〇 ト 十七石入(市價八十圓ノ品)同一八・三〇 チ 十七石入(市價九十圓ノ品)同一九・五〇

◉クローム懷中(タバン シーマー)(瑞西製)
(16型) イ 七寶石入(市價卅六圓ノ品)只の九・二〇 ロ 十寶石入(市價五十三圓ノ品)同一三・五〇 ハ 十五石入(市價六十九圓ノ品)同一七・八〇

十八金18HK懷中ウオルサム(金クサリ付)
(16型) イ 七寶石入(市價七十二圓ノ品)只の一八・〇〇 ロ 十五石入(市價八十八圓ノ品)同二二・〇〇 ハ 十七石入(市價百十二圓ノ品)同二八・〇〇 ニ 十七石入(市價百三十圓ノ品)同三〇・〇〇

十八金18HK高級腕時計(腕皮代)
(11型) イ 七寶石入(市價十八圓ノ品)只の三・九〇 ロ 十寶石入(市價二十八圓ノ品)同四・二〇 ハ 十五石入(市價卅二圓ノ品)同五・二〇
(10型) イ 七寶石入(市價十九圓ノ品)同四・二〇 ロ 十寶石入(市價三十圓ノ品)同五・二〇 ハ 十五石入(市價卅五圓ノ品)同六・二〇
(9型) イ 七寶石入(市價廿一圓ノ品)同四・九〇 ロ 十寶石入(市價卅二圓ノ品)同五・八〇 ハ 十五石入(市價卅八圓ノ品)同六・九〇
(8型) イ 七寶石入(市價廿二圓ノ品)同五・二〇 ロ 十寶石入(市價卅三圓ノ品)同五・九〇 ハ 十五石入(市價卅九圓ノ品)同六・五〇

十八金18HK高級懷中時計(リウゼ)
(16型) イ 七寶石入(市價廿五圓ノ品)只の四・五〇 ロ 十寶石入(市價廿八圓ノ品)同五・四〇 ハ 十寶石入(市價卅三圓ノ品)同六・三〇 ニ 十五石入(市價卅六圓ノ品)同七・五〇 ホ 十五石入(市價四十二圓ノ品)同八・九〇 ヘ 十五石入(市價五十八圓ノ品)同一〇・五〇

愛用謝恩歲末二重大景品附大賣出 (空籤全無)總數三千個限賣出開始!!

◉賣出規定
●賣出品…各社製品ヨー루18HK側腕、懷中時計
●賣出期間…昭和十年十一月十五日부터昭和十一年一月十五日까지(賣切次第締切)
●景品券…左記賣出品中買上高五圓以上에限景品番號券一枚式贈呈함
●抽籤日…一月二十八日同業組合立會下에嚴重公平抽籤器로抽籤함
●當籤發表…二月八日發行의各新聞紙上抽籤經過發表함
●景品送呈…二月二十日부터三月三十一日까지景品券引換하야送付함

◉景品內譯
一等(十本) 十八金側懷中時計(十六型十七石入)一個式
二等(二十本) 코럼비아포-타블蓄音器 一臺式
三等(五十本) 大名腕型寫眞機(獨乙製)一個式
四等(五百本) 크-롬側腕時計(九型十五石入)一個式
五等 柏來샤푸펜실一本式無漏贈呈
空籤全無
大스비-써 三千個限

好職業
男女高低不問自宅執務家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無資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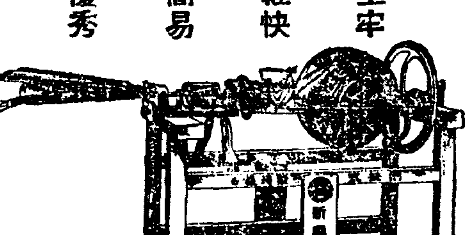
三共 SANKYO
鎭咳祛痰에 ブロチン
咳嗽及喀痰을가진急性·慢性의 呼吸器疾患、百日咳等에……
包裝 粉末 五〇瓦、錠劑 一〇〇錠 液劑 一〇〇瓦 其他 大量入有
文獻 說明 進呈
東京·製造 三共株式會社

●頭痛에 ノーシン
效果는期待以上!더구나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貴人愛好
銘酒 白鷹 ハクタカ
君臣是愛 輝威德自

擇하라白鷹 年末年始의 贈答品에
發賣元 辻本商店 京城南大門市場
電話本(2) 〇〇七五番 〇六四一番 一七七五番

農林省御推奬機
國益式製繩機
構造堅牢 運轉輕快 使用簡易 製品優秀



特約販賣店
群山府榮町二ノ四八 梯農機商會
京城府蓬萊町 東光商事株式會社
大邱府東城町 高羅商會
(製造發賣元) 東京國益社 名古屋支店 名古屋市西區東志賀町

景品付特賣中
景品
十六立樽詰 一樽每に 特製フライパン鍋 一個
七·五立樽詰 一樽每に 特製化粧石鹼 一個
二立壜詰 一本每に 特製化粧石鹼 一個
一ガロン罐詰 一罐每に 特製化粧石鹼 一個
全部洩れなく進呈……
特賣區域 朝鮮全道(南鮮を除外)
特賣期間 昭和十年十二月末日까지
年末年始의贈答用에는 꼭마루긴간장을利用하시라!
マルキン醬油 마루긴·간장
香川縣小豆島 丸金醬油株式會社

暖房裝置不備로 缺席生까지 續出

兒童發育上重大問題라고 學父兄側改善을要望

【撫順】 무순현하 조선인교육계는 미취학아동들이 다수인데다 그나마 취학(就學)한 아동들도겨울에는 결석하는 생도가 만케되여 아동교육상 중대문제화하여잇다 만주의 추위라면 참으로 살을어일뜻이 혹독한데 무순보통학교(撫順普通學校)에서는 교실 넓은방에 겨우한간가량의 한쪽으로온돌(溫突)을 놓하엿슬뿐이고 란로도 설비치안히 아동들이 추워서 견듸지못하게되여 결석자가 만허지는데 학교 당국으로선 해마다 경험하면서도 개량시키지 안홈으로 일반사회에서는 한시밧비 당국에서 각성하여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疑問의乞人屍 他殺嫌疑濃厚

【尙州】 경북상주군공성면(功城面)옥산시장(玉山市場)도로변에 지난 십팔일아침에 걸인의 사체를 발견하고 곳동지주재소 공의에게 검시한결과 타살의혐의가 농후하다하야 동서수일상주서장이하 최사법주임이 상주읍내의사 김긔석(金基錫)씨와동행하야 출장하는일방 혐의자백명철(白明哲)을 인치취조하는일방 사체는해부에 붓치엿는데전긔 걸인은 동면옥리(玉里)에사는 김만용(金萬用)이라는아이로서 수년전부터 발랑하야동리로 돌아단이면서 무수한 폐해가 만튼중 십칠일밤에 전긔 백명철의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훔치랴다가 주인 백명철이가 발견하고 부지깽이로 두어번 때리여서 내여 쫏친사실이 잇다하야 방금 상주서에서 백명철을 인치취조하는일방 사체를해부하는중이라는데 그귀결이 엇지될는지 주목중이라한다

教育機關을爲하야 一萬餘圓을喜捨 高、下條兩氏의特志

【江景】 강경중정 고상준(江景中町高相俊)씨는지난이십일 강경공립보통학교(江景公立普通學校)에일금일천삼백원을 기부하야 교육상필요한 설비를 하라하엿다하며 강경본정 하조우삼랑(江景本町下條友三郎)씨는강경읍사무소(江景邑事務所)에 실과녀학교(實科女學校)창립 긔금으로 일금일만원 (一金一萬圓)을 지난십칠일에 긔부하엿다는 소식을들려 일반읍민을 깁부게하고잇다고한다

公金紛失事件 警察活動開始

【固城】 지난십팔일에 고성경찰서에서는 마암면(馬岩面)면서긔 삼인을 검속취조중이라는데 내용은 면사무소서긔 허종보(許鍾甫)가 지세(地稅)를 증수하야 일천삼백여원을 지난십륙일오후네시에 회계최증순(崔增淳)에게 정식으로 넘겨주엇는바 그다음날인 십칠일오후두시에 전긔최서긔는 공금을계산하는중 일천원의 돈봉퉁이가 간곳이업서서 대소동을 일으켯는데 이소문을 들은경찰은 사건의단서를 엇기 위하야 전긔허, 최량인외십칠일밤에 숙직한최원대(崔元大)까지 검속취조중이라는데 아직그단서를엇지못한경찰은 철야활동중이며 일반은 이문제의전말을 주목하다고한다

北國新義州에 凍死頻頻

【新義州】 국경의 본격적 치위가 계속됨을따라 신의주시외에는 강시가중중한데 지난 이십

명이 무엇인지도 알수업다는바 신의주의 밀수경긔를 따라 다른지방에서 드러왓든 사람인듯하다고한다

◇

또 역시 이날(이십일일)오전일곱시경 신의주부내 영정(榮町)에서도 어려죽은 시체한개가 발견되얏는데 조사한결과 그는

으로 가다가 발이잇그러지며 하수구(下水溝)에 떠러저 그대로 쓰러저 죽은모양이라고한다

背任橫領罪名으로 崔相玉畢竟起訴 二十一日豫審에廻附

【咸興】 지난십월 흥원함흥부원검사국에구인되여 일반의주목을 끄을던 함흥부회의원 최상옥(崔相玉)씨는 그간장정(長井)검사의취조를받고잇던바 드듸여유죄로긔소되여 배임(背任)횡령의 죄명으로 이십일일 함흥법원예심에 회부되엿다 한다

十萬圓遺產圍繞코 叔侄間爭訟騷動

一審判決에 不服코 控訴까지 梁山嚴氏家蕭墻之變

【釜山】 경남양산군양산면 중부동(梁山郡梁山面中部洞) 엄주상(嚴柱祥)은 자기의 질(侄)인 부산부 영주정(瀛州町)엄병섭(嚴丙燮)을 상대로 신탁재산소유권 이전청구급 손해배상청구(信託財產所有權移轉請求及損害賠償請求)소송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제소하얏다가 패소의판결을받고 이에불복하야 부산 김준원(金埈源)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수일전에 대구복심법원에 공소를하얏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원고는 조부(祖父)인 엄석규(嚴錫圭)가 구한국시대에 양산군 세무도봉색리(梁山郡稅務都捧色吏)의 관직에 잇섯슬때에추수삼천석하는 거부가 되엿는데 명치사십이년 팔월경에 엄석규가 사망하자 전긔원고가 유산전부를상속하얏든바 그시원고는 미성년일뿐외라 양다리를 못쓰는 안진방이이므로 모친인 박숙부(朴叔夫)가 원고의 친형인 (즉 피고의부친)주원(柱元)에게 시가 십만여원하는 로지를 신탁하얏다한다 그런데 그후 원고의승락도 업시 마음대로 저당또는 판매등의 처분을 하야 신탁재산에 약이만원의 손해를 끼치게하고 주원이가 사망하자 그 피고엄병섭이가 상속을하게되엿다한다 그래서 원고가 수차에 공하야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얏스나 듯지안함으로 그와가티 소송을 제긔한것이라한다

小火二件

【新義州】 신의주부내의 소화두건 지난이십일 밤열시경 신의주진사정(眞砂町)리화시계점(利和時計店)에 전을들이니러낫섯는데 어린애가성냥불작난한것이 책상우의 휘발유에 당기어 부근에잇든 상품에 연소되얏든것이다 즉시진화되얏스며 손해는 약백원가량 또 동시에 신의주매지정(梅枝町)이십번지 김치덕(金致德)의집 온돌에서도 불이 니러낫섯는데 즉시 진화되고 손해는 약삼원가량이라한다

未墾地貸附問題로 兩洞民對峙抗爭

當局의處置를注視

【廣州】 광주군대왕면사송리송현동(廣州郡大旺面沙松里松峴洞)동촌진흥회에서는 지난십일월에 그동리구장민병길(閔丙吉)진흥회장민중식(閔仲植)량씨를 대표로그동리에 잇는국유미개간지 팔백여평을 전긔송현동진흥회로 대부하여 달라고 신청원을 경긔도당국에 제출하야 당국에서는 방금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데 지난십륙일 전긔 사송리사촌동(沙松里沙村洞)정경섭(丁敬燮)외 삼십일호 주민이 결긔하야 역시경긔도당국에 그에대한 반대진정을 제출하고 요사이 연일 대치항쟁중이라는바 전긔 사촌동(沙村洞)에서 그와가티 반대하는리유는 전긔미개간지는 지역상으로나 거리관계로나 사촌동에 연고가 깁흘뿐만 아니라 동리의 공유를 만들진대 부락단위(部落單位)인 일개송현동진흥회의 공유로 할것이 안이라 송현(松峴)사촌(沙村)량동을 합한 사송리(沙松里)전체의 동유로 만들자는것이라는데 일반은 금후당국의처분에 매우주목을 끌고잇다고한다

大田府西町火災 一棟三戶燒失

【大田】 지난 이십일일 오후세시삼십분경에 대전부 서정(大田府西町)일번지에 거주하는 길룡운(吉龍雲)의집 부엌에서 불이나서 일동삼호가 전소되엿다는데 그날은 마침 그곳 장날이되여 대혼잡을 일우엇다한다 손해액은 방금 조사중이며원인은 길룡운의 부부가 시장에 돈버리하려 갓슴으로 그차녀 금봉(今鳳)이가 저녁밥을 짓다가 실화가 되엿다한다

極貧者無料診療

【汶山】 파주군에 현재 칠만여의 인구를 포옹하고 잇는 이때에 의료긔관을 보면 단 한사람의 의사뿐으로 참으로 한심한 의료긔관이다 이때 경성치과전문(京城齒科專門)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정남진(丁南鎭)씨가 정치과의원(丁齒科醫院)을 문산시장에 개설하고 이에 의원설치를 긔념으로 무산대중의 건강을 위하야 극빈자에 한하야 무료진찰과 시약을 한다고 한다

漁港元山發展의癌 堆沙浚渫을促進

仕民代表府廳을訪問

【元山】 동해안에서 유일무이한 량항인 원산은 조선인 경제의 생명선적 존재인 원산어항(漁港)은 매일 수십척의어선이 출입또는 정박하는터인데 어항안벽부근은 광석천(廣石川)물이 밀어오는 모래(砂)로말미암아 어선정박이 불능케되야 어항원산의 치명적 존재를 상우어 어항발전상 불소한 타격이된다고 그적체된 모래를 파내는 준첩선(浚渫船)을 상비하야 그피해를 제거코저 원산어업조합에서 이천원 제이구저예망수산조합에서 일천오백원 합계 삼천오백원으로 조첩선을큰조키로되여 지난 십칠일 김경준(金景俊)한군필(韓君弼)한기수(韓琦洙)남백우(南百祐)등제씨가 원산부윤을 방문하고 원산해안준첩에 대한 교섭을 하얏다는바 일반은 그귀결을 매우주시한다고한다

橋上에서墜落 普校生慘死

【新安州】 안주군신안주면 상남리팔십팔번지 (安州郡新安州面上南里八十八番地) 량호건(梁浩健)의 사남승보(承甫)는 신안주공립보통학교 제사학년생으로 자전거(自轉車)로 통학하여오든중 지난 십팔일에 하학하야 집으로도라가다가 아희들이 빙상(氷上)에서 노는것을 바라 보다 가 불행 하게도 다리 우에서 떠려저서 현장에서 긔절 되엿다는 급보를들은 부모는 달려가서 곳평양도립병원에 입원치료중이엿스나 지난 이십일 하오시에 무참하게도 사망하엿다한다

耽津江堤防工事 着着進捗中

【光州】 전남강진군 군동면(康津郡郡東面)의 탐진강 제방공사(耽津江堤防工事)는 이미 착수되엿는데 준공긔한은 명년삼월말이라하며 소요공사비는 오만원이라한다

索租의名目으로 作料를添加徵收

小作人每人當一斗式을濫徵 警察에發覺되여返還

【水原】 소작료(小作料)외에 색조(索租)라는 구실하에 매인당 한말식을 더 증수하엿다가 발각되어 다시 난우어준 부정한사음이잇섯다 수원군 안룡면장지리(水原郡安龍面長芝里)리태호(李泰浩)(假名)는 수년전부터 이삼인의 대지주의 토지를 관리하여오든바 지난 가을 추수기에 소작하는 작인으로부터 매인당 한말식 약두섬가량을 증수하엿다가 필경 발각되어 소관 병점주재소(餠店駐在所)경관의 제재로 각각 도로 난우어주엇다는데 이를 들은 소작인들은 매우 비난하여마지안는다고 한다

韓銅錫氏當選

【麗水】 전남려수군에서 도회의원 (道會議員)보결선거를 예정과갓치 지난 이십일에 시행하엿는데 개표한결과 팔십칠표의 다수득표로 려수면교동리(麗水面校洞里)한동석(韓銅錫)씨가 당선되엿다 한다

地方人事

▲金田育氏(醫師) 今般 順天醫院 開院人事次 本報元山支局

市內各團體에 千三百圓喜捨

【安城】 안성읍내동리 김대덕(金大德)씨는 금번 그의부친상을당하엿는데 그장비를 절약하야좌긔와가티 각단체에 긔부하엿다한다

安城幼稚園 安靑學校 安城消防組各三百圓式 安城公立普通學校 安城國防義會各二百圓式

經費五萬圓으로 下水溝工事實施

光州府年度內에實現

【光州】 하수도불완전으로 적지안흔 불편을밧든 광주부에서는 금번에 오만여원의 긔채인가(起債認可)를어더 금년도에 실시하기로되엇다하며 그예정개수는다음과갓다한다

욱정(旭町)、대화정(大和町)、북정(北町)、대정정(大正町)、수기옥정(須奇屋町)루문정(樓門町)부동정(不動町)사정(社町)등이라한다

成年講習計畫 全南道當局서

【光州】 전남도당국에서는 성인문맹(成人文盲)을 퇴치시키코저 도내에 이백사십사공보교에 매교륙십여명내외를 수용하는강습회를 개최하기로되엿는데 금년도에는 위선륙백부락의 성인문맹만에대해 강습을 시키키로되엿는바 강습기한은 명년일월부터 삼월까지라고하며 강습과목

安東商業校寄附金 豫想以上의好績

明年四月開校無疑

【安東縣】 긔보=안동현유지제씨는 지난이일 압강춘(鴨江春)에 모여 상업학교(商業學校)긔성회를 조직하고 명년사월에 개교코저 동포측으로 일만오천원의긔부금을 모집키로 되엿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그후 유지긔성위원들은 치운을 불구하고 시급히 긔부금모집에 분망중이더니 벌서 예상하엿든 일만원의 긔부가 룽과되엿다 하는바 기부방명과 금액은 다음과갓다

▲二千圓金俊玉 ▲一千圓徐秉奎 ▲五百圓金虎贊 張景淳 金得珠 高翰瑞 金元泰 金志善 ▲三百圓李忠根 白元贊 柳龍煥 金贊一 吳永贊 ▲二百圓金順傑 韓植 李寬用 鄭熙贊 ▲一百三十圓崔謙愚 ▲一百圓金最玉 朱赫 崔成澤 張基立 金東昊 張炳官 金仁永 高有權 金文奎 吳鳳基 康內坤 李明植 金基泰 ▲六十圓 金昶 ▲五十圓金志鳳 金司庸

光州邑內에感冒

【光州】 극심한 한발로 말미아마 치위에 먹을것조차 업서서 떨고잇는 이때에 닥처오는것으로 독감이 창궐하야 광주부내에만 매일 수십명의 환자가 속출하야그 예방에 당국에서도 적지안흔 활동을하고잇다한다

京畿道漁聯의創立과 島嶼漁民의生活問題 (一)

仁川支局 一記者

【仁川】 부천군(富川郡)덕적(德積)룡유(龍游)북도(北島)령흥(靈興)사개어업조합과강화(江華)어업조합을 합하야 지난십이일경긔도청에서 일천오백원이란굉장한 창립비로써 경긔도어업조합연합회를 조직하고 이에관련된 관계자 십여명은 조선서해안 일대의 군소어민들의 생활상에더한 영향이잇스며 또는 련합회창립으로 인하야 중간영업자들오십여명이각도서민(島嶼民)에게 대부한 금액을강제회수한다면 어떠한문제가 확긔할것을고려치안코 창립하기붕에만 넘처 경성모료정을 위시하야 일이차로 종야유흥하엿슬뿐 아니라 소화십일년 일월일일부터인천수산시장을 경영하다고 호언장담하고잇다 이로인하야 동시장경영자오십여명은 어민들에게자금조달하든것을 중지할뿐 아니라 종전부금 총계십여만원을 회수에로력하는일방도의강압적태도에 반감을 가진 그들은일반어민들의 선박(船舶)또는 해산물을 차압하고자 착착준비중이라 전한다 그러면 수산시장경영자와 경긔도사이에 경영권양여문제로 인하야 가장 큰침해와 희생을 당하는것은 서해안일대의 군소어민들이라 이에 산재하야잇는 서해안 어민들을 집단시기여 어민의 리득을 보호하야 주라고 도에서 조직한련합회가 창립되는 벽두부터 어민의 리득은 고사하고 가장큰친해를 줄뿐아니라 과동하는 그이와 대구를 잡아 과동하는 동어(凍魚)의 생업도 자금문제로 중지하게될뿐아니라 추은 겨울에 시량이 떠러저서 긔근을 참다못하야 현경영자들에게 구원을 애걸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눈물먹음고 도라가는 어민이 매일평균 수십명에 달하는 형편이다 그러면 이참상을 초래한 원인이 어데잇느냐하는것이 서해안어민들에게 즉접간접으로 가장큰문제이라 문제가문제이니 만큼만천하의 주목을 잇끌고잇고 사건의 최후결전일인 일월일일이 박두하엿슴에 그원인과 시장의 유래와 또한 책임문제에 관한 모든것을 만천하독자에게 소개코자하는바이다

×

인천수산시장은 지금으로부터 약삼십여년전 구한국시대부터현재잇는 정흥택(鄭興澤)상점이 생어(生魚) 소매시장에서 부근어민들이 잡아오는 해산물을취급하야 오든바 그후일한합병과한가지 일본내지인의이주민이격증함을 따라 인천수산주식회사까지 생기여 경성(京城)수원(水原) 개성(開城)등지에 공급하기시작한것이다 그러나 판매고는 매년증가하야 염간어(鹽乾魚)까지합하면일년평균백오십만원이상이됨으로영정(永井)인천부윤은 이를등한시할수업다하야 화방정(花房町)현수산시장을 소화구년도에설립하고 일만원공비로 시장전용잔교(棧橋)까지만들어 동시장외에서는 매매를엄검하고 시장을갑을(甲乙)의 두매장(賣場)으로분하야 갑매장은 조선어업령제일조합측에 해당한정흥택(鄭興澤)상점이 이를양수경영하고 을매장은 일조상항에해당한수산주식회사에서 양수하야 전긔두매장에는 오십여명의 염간어(鹽乾魚)객주업자가 잇서서 염간어문옥업(問屋業)조합까지잇게되엿다 그리하야 동시장이외에서는 매매를 일체엄검하야 동시장의매매고는 염간어일백칠십만원 생어사십만원 매년 총합이백십만원의 매매고를 내이는 시장을 형성하고 잇다 그러나 동시장의 업적을 본다면 수산주식회사는 겨우 수지만이마저 일반주주의 배당은아모것도 업는형편이요 정흥택상점과 염간어문옥업조합은 매년 조흔성적으로 향상하고잇다 그러나 이것은중산상인이라는이보다 위탁판매를하고 잇는바이다 그러나 현재전선을통하야 정조(正租)검사제를 실시한것과가티 조선어업자들에게도 정부의방침으로 일반어업자들로하야금 조합을조직케한후 이것을 도한사개이상의 조합이잇는곳에는 연합회를두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즉접공급케 하기로되엿스나 그실시가 가장곤난한것이라 그리하야 우선 민간사업에아모지장이업는곳을골라 련합회를 조직케하엿스나 부산(釜山)가튼곳은 민간상업에 여러가지지장이 만흠으로 십년간 시장경영권을 련합회에 양도케하고 관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준전례가 잇슴에도불고하고 이러타할만한 큰어장도업고 조합수도 모자라는곳에 유명무실의 조합까지 조직케하야 전광석화(電光石火)와가튼속력으로 련합회를 강압적으로 조직한것이 민간에 가장큰 의문을 살뿐아니라 원성을 사게되는것이다(계속)

火賊 林巨正 (239)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六의十七

밤재 옷고개 길로 고랑포까지 나오는데는 김억석이와 김산이가 길라 잡이노릇을하얏고 고랑포서 점심요긔하고 장단불지나 송도까지 오는데는 황천왕동이가 압서오며 뒤의사람을 재촉하얏다 황천왕동이는 놀양으로 걸엇 지만 김억석이와 김산이는 딸아오느라고 죽을애들을 썻다 점심뒤에 팔십리길을 오고보니 삼사월 긴긴해도 발서 다지고 달빗지 생기엇다 세사람이 달을 띄고 청교를 지나올때 황천왕동이가 뒤를 돌아보며

『시장들하지 우리 어듸가서 술짠이나 먹구가세』

하고 말하니 김억석이가 풀끼업는말소리로

『송도서 주무시지안쿠 바루 나가실랍니까』

하고 물엇다

『그럼 밤에 나가지 이삼십리 남겨노쿠 잔단말인가 미루당이만 나가면 홰두 잡힐수잇네』

『저는 발병이 나서 십리두더 못갈것갓습니다』

『밤중에 들어갈작정하구 찬찬이 걸어가지』

『제처의 고모가 검은학골서사니 거긔가서 하룻밤 주무시구 가시지요』

『자네녀편네가 검은학골 와서 잇나』

『어제당일은 못와슬께구 오늘 왓겟슴지요』

『그래 녀편네를 보구갈생각인가』

『집을 비여노쿠 왓스니까 얼른가라구 말을 일르구 갓스면 조켓습니다』

황천왕동이가 김산이를 돌아보며

『엇더케하는게 조켓소』

하고 의향을 물으니 김산이도 다리가 아퍼서 밤길걸을렷정이 업는판이라

『검은학골 가서 주무시구가는게 어차어피 조흘것 갓습니다』

하고 대답하얏다 황천왕동이가 고집을 세우지안코

『셋동행에 둘의말을 안조칠수 잇나』

하고 말한뒤에 김억석이를 압세우고 검은학골로 올라와서 무당의집 아페 와서 김억석이가 잠시 서잇스라고 말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한동안 착실이 지나도 나오지아니하야

『장가섯스랴구하구 들어간사람이 펑구어먹은소식이니 웬일일까』

『집을 비여노쿠 와다구 녀편네가 사살것이나 하는가봅니다』

『아지미집두 남의집인데 손들을 끌구와다구 조와안는지 몰으지』

『글세요 그럼 어듸 딴데 가서 주무시까요』

『요긔들이나하구 그대루 가는게 조흔걸 공연히 와서』

황천왕동이와 김산이가 서로 보고 짓거리는중에 김억석이가 녀편네와 가티나왓다 녀편네는 얼굴이 말상지고 허리가 늘신하고 걸음거리부터 멋들어보이엇다

『이게 제처올시다』

김억석이말끄테 녀편네가 황천왕동이와 김산이를 향하고 긴허리를 굽신굽신하얏다 황천왕동이가 녀편네더러

『이러케 오늘와서 미안하우』

하고 말하니 녀편네가

『천만에 이러케 박게 서기시게해서 지가 미안합지요』

대답하고 말하기어려워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제고모가 대단히 알어서 지금 경황들이업습니다』

하고 말을 내엇다 황천왕동이가 김억석이를 보고

『우리 가는게 조켓네』

하고 말하는데 녀편네가 선뜻 김억석이 대신으로

『이런 미안하고 황송할데가 업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난처한것을 통촉하서서 용서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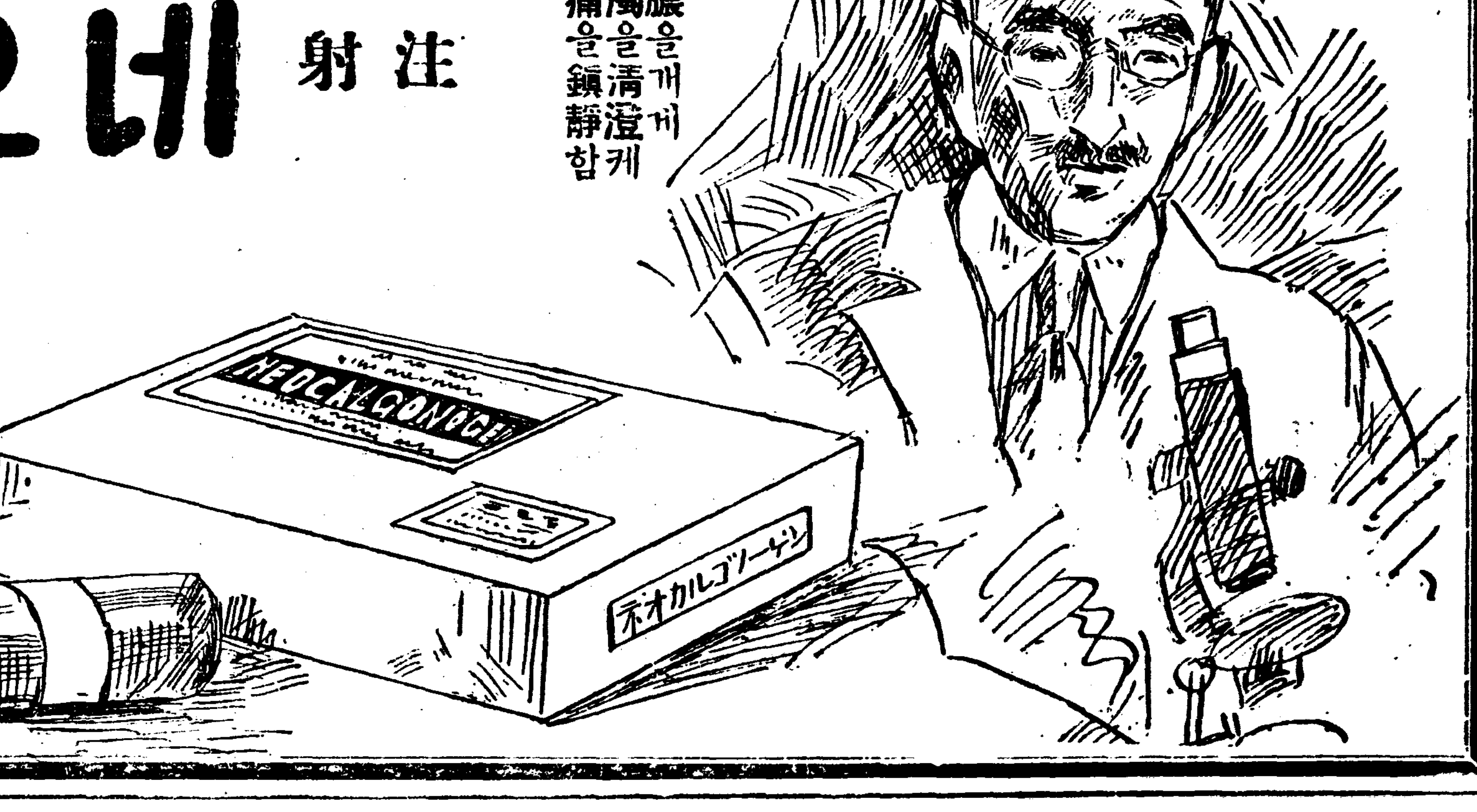
하고 말하얏다 김억석이는 말할것업고 김산이와 황천왕동이도 검은학골서 자라고 장대고갓다가 자지못하고 돌우 큰길로 나려오는중에 술파는집을 차저들어가서 술짠으로 로긔들하고 청석골로 나오는데 김억석이와 김산이가모다 걸음을 못걸어서 황천왕동이는 갑갑한것을 참다못하야 마침내 합고개동네에 와서 그날 밤쉬고 이튼날 식전에 산속으로 들어왓다

황천왕동이가 김산이까지 차지려간 김억석이외에 새로 다리고온것을 여러두령들이 모다조하하는중에 꺽정이는 녯날검술선생의 생각으로 그족을못내 반겨하엿다 꺽정이가 김산이를두령으로 대접하야 교의를 주고 상익석이는 나가살도록 소원을 들어주엇다(六의終)

淋疾及合併症新療法

注射 네오가루고노-겐 (ネオカルゴノーゲン)

迅速히膿을개게하고白濁을淸澄케하며疼痛을鎭靜함



淋疾과가티細菌의感染으로因하야 생기는 疾病에는細菌學的療法이가장合理的으로奏效하고 淋菌의撲滅이라는根本的治療를 해볼수잇는것이다 그런데從來의 許多한藥劑는化學藥의 힘으로 鎭痛止膿効果를엇기에만汲汲한現狀이다

本劑는 細菌學的治療로 淋菌박친을 主體로삼고 거다가 消炎、鎭痛、利尿、防腐의効果가잇는 칼슘及우로사민을配合하야 만든것으로서 通常淋菌박친과달라서 獨特한 處理法에依하야 그抗原單位를數倍量이나엇다

即三-五回의注射로急性淋疾의疼痛、排膿、下腹部膨滿等의 自覺症狀을消滅하고 尿의白濁을淸澄케하야 顯微鏡下에檢査하여도 淋菌의消失를보게된다

右와가티本劑는 多數한醫家의 絕讚하시는바로 그臨床實驗에잇서 그偉效를顯出하야 顯著한治療成績을 收得하엿다

特히淋毒性合併症、睾丸炎、攝護腺炎、膀胱炎、又婦人의子宮內膜炎、卵巢炎、喇叭管炎에는手術할박게道理가업는境遇에도本劑의注射로能히 治療할수가잇다

用法 一回一筒(二〇cc)式 隔日로筋肉內에注射함

包裝 五管入 三十管入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特約店

京城本町二丁目 山岸藥店
同 同 古城藥店
同 二丁目 北島藥店
同 同 阿部悟藥店
同 三丁目 森川回天堂藥店
同 同 木村眞三郎藥店
同 南大門通二 新井藥房
同 明治町二丁目 坂井峰太郎藥店
釜山府本町 大矢普松藥店
同 辨天町 大黑南海堂藥店
同 同 藤田猶三郎藥店
同 富平町三丁目 ヤマノ鹽雲堂
馬山府都町 石見屋藥局
平壤府大和町 藥石千壽堂藥店
同 同 森田草榮堂藥店
同 南大門通 日新堂藥房
木浦大和町 木下涼藥店
木浦福山町 伊藤韻太郎藥店
大邱府大和町一 佐伯仁正堂藥店
同 元町 町田回春堂
全羅南道光州北門 木下忠藥房
全羅北道全州本町 田島宇藏藥店
元山府本町二丁目 石田淸生堂藥店
淸津明治町 山野鹽雲堂支店
羅南生駒町 稻垣日本堂
元山旭町 伊藤藥店